

안전인증의 향후 정책방향

- 월드컵대표 선발하듯... 국가 대표인증마크 도입 -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
표준인증혁신팀 범희권 팀장

"그 사람 어때?", "그 친구? 사람이 됐어. 괜찮은 친구야."

새로운 사람을 소개 받을 때, 우리는 그 사람의 인격·사회성 등이 사회가 요구하는 일반적 기준에 부합하는지를 보고 평가한다.

생똥맛겠지만 표준과 인증도 똑같다. 마치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을 사회적 기준에 따라 '괜찮은' 사람이라고 인정하듯, 인증이란 제3자인 인증기관(A)이 제품·서비스·공정 등(B)을 규정된 요건(표준)에 적합한지 평가·보장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인증 제도는 소비자에게 제품과 서비스에 대한 믿음을 주고, 기업에게는 제품의 품질향상 뿐만 아니라 경영효율 극대화의 수단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유용한 제도다.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올라 간다"

하지만 우리의 현주소를 살펴보면 유사한 인증이 난립하여 기업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소비자의 신뢰를 얻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지난 5월 산자부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운영 중인 인증제도는 총 140여개에 달하며 한 기업 당 평균 3개 정도의 인증을

보유하는데 4천여만 원을 지불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 기업 차원에서 보면 인증획득에 2.2조 원을 치르고 있다 것을 의미한다. 국제기준 뿐 아니라 국내제도 간 상이한 인증기준과 수많은 인증마크로 인해 소비자나 기업은 혼란을 느끼고, 무역장벽이 발생할 우려 또한 높은 실정이다.

표준·인증 혁신은 기업경쟁력 강화와 소비자의 신뢰 확보를 위한 것

국가표준·인증제도 혁신의 최종 도착지는 국가 표준 간 통일성을 기하고, 인증제도 간 중복을 해소하여 기업하기 좋은 생태계를 조성하고, 소비자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이다. 제품에 따라 사소한 차이가 있겠지만, 전기제품의 경우도 위의 대원칙에 입각해서 인증혁신을 추진해 나아갈 것이다.

첫째, 전기용품과 같은 강제인증 대상 품목에 대해 통합 인증절차 제도와 통합 인증마크를 도입할 계획이다. 모듈심사 시스템을 도입하여 한 제품은 한 번의 검사와 한 번의 사후관리만 거치도록 하며, 국가대표 인증마크를 부여하여 소비자 뿐 아니라 국제시장에 우리상품의 신뢰도를 확보해 나아갈 것이다.



둘째, 법정임의 인증은 중복인증 취득을 방지하기 위한 제반 계획을 추진할 것이다. 동일한 목적을 가진 인증은 통합화를, 인증기준이나 절차가 유사한 인증은 단순화하고, 제도별로 상이한 인센티브 제도를 정비하여 다수의 인증을 취득하여야 하는 근본적 문제점을 해결해 나갈 것이다. 아울러, 시험결과에 대한 성적서를 상호 인정토록 하여 중복시험을 받는 부담을 해소할 것이다.

셋째, 민간인증은 난립한 인증제도를 자율적으로 정화할 수 있도록 관리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등록제를 도입하고, 협의회를 구성·운영하여 민간인증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강화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나아가도록 하겠다.

넷째, 국가규격에 대한 체계적 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상호 중복·모순이 발생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할 계획이다. 국가표준과 기술기준에 대한 단일 코드 시스템을 도입하여 규격 간 중복·상충을 해소하고, 국제기준과의 부합화를 적극 추진해 나아가갈 것이다.

끝으로 적합성평가 인프라를 강화하여, 인증의

공신력을 확보할 계획이다. 전문인력 양성과 설비 확충이 이루어지면 해외에 시험·검사를 의뢰하여 발생하는 외화유출 방지는 물론, 장기적으로 외국과의 상호인정협정(MRA) 체결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국내의 다원화된 표준·인증 관련 정보망을 통합하여, 규격 검색은 물론 소비자 불만처리, 해외인증 취득 지원 등도 단일창구에서 가능토록 할 계획이다.

국가표준·인증제도 혁신이 완료되는 2010년에는 연간 7,900억 원의 인증취득 비용이 절감되고, 소요기간이 1/3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19개 정부부처 86개 법령을 정비하고, 140여개에 이르는 인증을 정비하는 작업인 만큼 단기간에 쉽게 이뤄내기 어려울 것이다. 하지만, 월드컵을 위해 4년간 엄청난 훈련과 평가를 거쳐 대회 개막 한 달 전 최종 대표선수가 선발되듯, 민·관이 소비자들과 기업의 입장에 서서 뜻을 합친다면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국가 대표인증마크 등 값진 성과를 얻을 것이라 확신한다.